



연세대 철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중국 주밍팡 박사

“한국서의 연구활동 큰 성과”

연세대 철강연구소에서 2년6개월간 초빙연구원으로 활약한 중국의 과학자 주밍팡(朱鳴芳/45세)박사는 “한국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상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하고 “한국서의 연구활동은 귀국 후의 연구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98년까지 중국 남동대 기계공학과에서 근무해온 주박사는 합금강(특수강)의 응결구조 시뮬레이션을 연구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과학기술은 커다란 도약 발전을 이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이고 많은 연구분야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이 과학기술에 있어 더 많은 성과를 갖게 될 것이고, 세계속에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연세대 철강연구소에서 post-doc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주밍팡 박사(朱鳴芳·중국 남동대 기계공학·45세)는 지난 2년여를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단함을 피부로 느꼈다며, 한국에서의 연구성과가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합금강 응결구조 연구

주박사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세계의 과학기술 문명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고, 특히 금속재료분야에 있어서 4천년 이상의 금속 생산품 제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2세기 동안 몇몇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연되었다고 아쉬워한다.

그러나 근래 20년 동안 중국 정부는 개혁과 열린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도 급속히 이루어 가고 있으며, 재료공

학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한다.

합금강(특수강)의 응결구조 시뮬레이션을 연구 중인 주박사는 현재 중국에서 이 분야는 아직도 예비단계에 있다며,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수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박사는 한국의 Brain Pool과 BK21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과학자들에게 한국인 과학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게 해 주었다며, 이런 시도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뿐 아니라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런 정책은 과학 발전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과학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법들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주박사는 21세기에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주로 과학기술 발전수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과학기술 연구에 최대한 지원해야 하고 특별히 그 지원이 대학에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에는 최고의 교수와 과학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부가 그들

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과학자들을 길러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박사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있고 알맞는 연구주제나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을 조언한다. 그런 후에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은 항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도 능숙해야 한다는 주박사는 훌륭한 작품은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것과 좋은 아이디어는 연구원의 지식과 경험, 독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얻어진다는 것, 연구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항상 지루하므로 훌륭한 연구원이라면 우수한 두뇌 외에 근면함, 세심함, 인내 그리고 끈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생활 속에서 배웠다고 말한다.

### 전통·현대문화 조화이뤄

한국에서의 지도교수인 홍준표 교수를 만난 것도 그녀에게는 큰 행운이라며 금속·재료공학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이자,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홍교수는 매우 경험이 많은 교육자이며 현명한 매니저(관리자)

로, 그의 모든 그룹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모든 사람들이 학문적이고 연구적인 능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동안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일을 찾아내 준다고 말한다.

홍교수가 자신을 외국인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의 그룹의 멤버로서 똑같이 대해 주고, 자신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고 고마워한다.

구조 시뮬레이션에 백지장인 자신을 전문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주었으며, 그밖에도 ‘항상 단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라’, ‘훌륭한 연구원은 겸손해야 한다’는 등의 인간적인 가르침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단순해 머무르는 동안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은 없지만 한국인들이 매우 정중하고 친절해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고, 후배가 선배를 예우하는 등 전통문화와 현대화가 잘 조화된 나라라고 느꼈다고.

주박사는 98년까지 중국 남동대 기계공학과에서 근무하고, 99년 2월부터 금년 8월까지 2년반 동안 연세대 철강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①

송해영<본지 객원기자>